

## 번역가의 문체선택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 비교분석\*

조 의 연  
(동국대\_서울)

### 1. 들어가는 말

번역 텍스트의 문체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천 텍스트의 문체가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해석, 생산, 재창조되고 있는가의 과정에 관한 것이며(Gutt 2000: 6장, Boase-Beier 2006: 4장, 2011: 2부) 다른 하나는 목표 텍스트 문체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Malmkjær 2004, Bosseaux 2007, Munday 2008: 1장). 후자의 번역문체 연구를 맘케어(Malmkjær 2004)는 ‘번역 문체론’(translational stylistics)이라고도 부르는데, 번역 문체론의 문체 연구는 번역가의 목소리(voice), 이념, 태도 등이 문체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1-A00584). 세 분 심사자의 세심한 평은 이 논문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는 필자의 책임이다.

보이는 것이다. 비록 번역 텍스트 자체의 문체를 연구하더라도 ‘번역 문체론’은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번역 문체론’의 입장에서 셀린저(J.D. Salinger)의 미국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원천 텍스트의 문체와의 관계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문체적 특성이 보이는 문체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대표적인 문체적 특성은 비표준적인 구어체 영어이다. 특히 이 소설은 1950년도 미국 동북부 십대들의 언어로 쓰였다.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이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where I was born, and what my lousy childhood was like, and how my parents were occupied and all before they had me, and all that David Copperfield kind of crap, but I don't feel like going into i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홀든의 반복적인 울타리 표현(hedge) ‘and all’ 그리고 십대들의 비속어 ‘kind of crap’ 사용이 보여주듯이, 서술자(narrator)는 그 당시의 비표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 소설의 전체를 지배하는 특징적인 문체이다. 이러한 매우 일상적인 그리고 표준적이지 않은 구어체는 당시의 다른 소설의 문체에 비해 매우 유표적인 문체이다 (Murphy 2011: 58). 특히 의식의 흐름을 좇아 독백을 하듯이 주인공 홀든은 등위 접속어 ‘and’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홀든의 첫 언급은 물론,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접속어 ‘and’의 빈번한 쓰임은 이 소설의 언어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1) 두 번역 텍스트는 김옥동·염경숙 (1994) 『호밀밭의 파수꾼』과 이덕형 (1998) 『호밀밭의 파수꾼』이다. 앞의 텍스트는 TT1(Target Text 1) 그리고 뒤의 것은 TT2로 표기될 것이다.

I mean I had the whole evening free, and I thought I'd give her a buzz and, if she was home yet, take her dancing or something somewhere (밑줄은 필자의 것임).

위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한 발화 단위 내에서 접속어 ‘and’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

리치와 쇼트(Leech and Short 1981/2007: 201)에 따르면, 현대소설에서 이와 같은 추론유발 연결어(inferred linkage)인 접속어 ‘and’는 문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erefore’, ‘so’, ‘but’ 등의 논리적 접속어는 해당 텍스트의 담화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만드는 반면, ‘일반 목적 연결’(general purpose link)이라고도 불리는 접속어 ‘and’는 관계된 담화 정보의 내용을 독자가 추론하게 하게 만든다.<sup>2)</sup> 예를 들어, 홀든은 자기 친구 스트래들레이터가 작문숙제를 부탁을 하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Just because *there're* crazy about themselves, they think *you're* crazy about them, too, and that you're just dying to do them a favor (이탤릭체는 원저자의 것임).

홀든의 발화에서 쓰인 접속어 ‘and’는 후행절 ‘you're just dying to do them a favor’와 선행절 ‘you're crazy about them, too’를 연결시키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연결어이다. 독자가 자신의 세상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무척이나 자기를 좋아하면, 그들은 자기의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라고 여기는 경우, 접속어 ‘and’의 선행절 명제의미는 후행절 명제의미에 대한 조건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독자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여도 그 강도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논문에

2) 이러한 접속어 ‘and’는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의연(2011)에서 필자는 이를 외축의 명시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의 추론 현상은 그라이스(Grice 1975)에서 일반대화함축으로 논의된 이후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포함한 추론 화용론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nd’의 현상을 문체의 관점에서 번역가마다 다르게 실현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서 다루는 두 번역본 가운데 TT1은 이를 달리 해석하여 번역하고 있다. TT1의 번역가는 두 절의 정보관계를 원인-결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부호화하여 논리적 접속 부사 ‘그래서’를 선택하여 쓰고 있다.

(1)

TT1 자기 자신에게 훌쩍 빠져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미쳐 있는 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사족을 못 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반면, TT2는 연결조사 ‘고’가 사용되어 이러한 추론적 의미해석은 독자에게 남겨진 상태이다.

(2)

TT2 자기 자신에게 반해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반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자기의 부탁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어 못 견뎌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원천 텍스트의 약성 함축(weakly implied)이 번역 텍스트 TT1에서와 같이 접속 부사 ‘그래서’로 부호화되는 경우, 이는 두 사건에 대한 관계가 무엇인지 서술자의 세계관을 드러나게 하는 ‘마음 문체’(mind style)로 기능을 하고 있다.<sup>3)</sup> Fowler(1977:103)는 “개인의 정신적 자아를 나타내는데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언어적 재현”(any distinctiv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an individual mental self)을 지칭하기 위해 ‘mind sty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어떤 개체나 사건에 대해 묘사할 때, 작가에게 주어진 일련의 표현들 가운데 작가가 특정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개체나 사건에 대한 그 작가의 인지적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는 인지 문체론(Boase-Beier 2004)의 입장을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인지 상태를 반영하는 언어적 문체를 마음 문체로 본다. 이는 그것이 번역 텍스트이든 원천 텍스트이든 문체 연구의 대상이다(Leech and Short 1981/2007 5장,

3) ‘mind style’은 김순영·이경희(2012)에서는 ‘내면 문체’ 그리고 황도경(2002)에서는 ‘정신 문체’로 번역되기도 하나, ‘마음’이 ‘정신’을 의미하고 ‘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마음 문체’로 쓸 것이다.

Boase-Beier 2007: 37). 마음 문체는 문학 속의 세계가 무엇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속의 세계가 독자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마음 문체는 소설의 담화 구조에 적용되어 소설 속의 등장인물 또는 서술자가 사건 관계들을 어떤 시점(point of view) 또는 관점에서 언어적으로 나타내는가와 관계된다. 따라서 마음 문체는 서술자 또는 등장인물에 의해서 선택된 통사적 또는 어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한다. 서술자에 의해서 선택된 통사적 또는 어휘적 특성은 그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인상(impression)을 독자들에게 남긴다. 이 논문에서는 두 번역 텍스트가 ‘and’로 연결된 두 사건 관계를 필자로서의 번역가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그 차이를 마음 문체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원천 텍스트 *The Catcher in the Rye*의 ‘추론유발 접속어’ ‘and’의 문체가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번역 문체론의 관점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탐구할 것이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두 번역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의 ‘and’ 문체 표지를 생략과<sup>4)</sup> 더불어 ‘-아서,’ ‘-아,’ ‘-는데,’ ‘-기 때문에’ 등과 같은 논리적 접속어로 대체하여 다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적 연결어의 사용은 두 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결속성(cohesion)에는 기여를 하지만, 관련된 담화 정보의 관계를 독자가 추론하게 만드는 문학적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생략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연결어의 발생 빈도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두 번역 텍스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두 번역 텍스트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접속어 ‘-아서’와 ‘-아’ 그리고 생략을 중심으로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4) 생략은 접속어 ‘and’로 연결된 두 접속절이 번역 텍스트에서는 연결어미 또는 접속부사의 사용 없이 각각 독립된 발화로 재현된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ST Anyway, it was December and all, and it was cold as a witch's teat, .....  
 TT1 하여튼 12월이었다. 날씨는 마녀의 젖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 ....

## 2.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 2.1 연구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번역 문체론은 번역 결과물로서 번역 텍스트 고유의 문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 하에서 분석한다. 문체는 언어 선택의 문체이기 때문에 번역 문체론은 번역가의 역할을 독자로서보다는 작가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작 작가와 달리 번역 작가로서의 번역가는 상호 텍스트성의 일반적인 영향보다는 원천 텍스트에 대한 직접 중재의 관계에서 있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직접 중재의 입장에 서있는 번역가가 선택하는 언어 표현은 따라서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살펴 볼 때 그 특성이 드러난다. 번역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은 번역 텍스트가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탐구되고 특히 두 텍스트들 사이에 일관되며 규칙적인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sup>5)</sup> 번역가가 왜 그러한 언어적 선택을 하였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문체적 관점의 질문이 제기된다.

창작 작가 또는 번역 작가의 언어 선택이 지속적인 구조적 선택으로 축적될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는 문체로 이어져 한 작품 내에서도 서술자가 어떤 시점으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읽을 수 있다. 문체가 갖는 이러한 서술적 효과를 보기 위해, 또는 달리 말하자면, 어떤 서술적 효과가 문체의 옷을 입고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복적 패턴 또는 지속적인 구조적 선택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때로는 통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Leech and Short 1981/2007 2장).

문체 연구는 언어 연구와 같이 훈련된 문체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리치와 쇼트(Leech and Short 1981/2007: 38)가 할리데이를 인용하며 언급하듯이, 문체 연구자의 직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는 간과될 수 있는 중요한 문체적 특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발생 빈도수의 측정 등

5) 맘케어와 카터(Malmkjær and Carter 2002: 510)는 문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tyle’ can be defined as a consiste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ularity of occurrence in text of certain items and structures, or types of items and structures, among those offered by the language as a whole.

통계적 접근은 필요시 수용된다. 특히, 번역 문체론에서는 반복적 패턴을 형성하는 언어적 특징을 번역 텍스트의 문체로 다루기 때문에 문체적 요소에 대한 반복적 패턴에 대한 연구자의 직관이 작동하더라도 이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번역 텍스트의 문체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번역 문체론의 틀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서술자인 주인공 홀든이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나열식으로 서술하는 데 반복적으로 선택한 접속어 ‘and’의 문체 표지가 번역 텍스트에서 어떤 패턴으로 실행되는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문체의 문학적 효과의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접속어들 가운데 텍스트의 결속성에 기여도가 가장 낮은 ‘and’가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가에 의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조정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소설의 1장에서 25장에 걸쳐 각 장에서 사건관계가 일반 목적 연결어 ‘and’로 연결된 구문을 10개씩 발생하는 순서대로 선택하였다.<sup>6)</sup> 그 결과 총 250개의 ‘and’ 구문을 비교말뭉치에서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두 285개의 ‘and’ 접속문을 분석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250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 문장 내에 여러 개의 ‘and’ 접속절이 존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총 분석 자료의 수는 285개에 이르게 되었다. ‘and’가 두 번 이상 발생한 원천 텍스트의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ST He got up and got another hunk of ice and put it in his drink, then he sat down again.

ST He was making out like he was walking a very straight line, the way kids do, and the whole time he kept singing and humming.

그리고 각각의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연결어미 또는 접속 부사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였다.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리한 이유는 각각의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원천 텍스트

6) 이 소설은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26장에서는 관련 구문의 양이 적어 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와 비교한 후,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 2.2 분석 결과

위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해당 표현을 분석한 결과, TT1과 TT2 모두 생략을 포함하여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등으로 원천 텍스트의 ‘and’가 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TT1과 TT2 공통으로 쓰인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아서, -아, -고, -는데, -면서, -고는, -더니, -니까, -는데도, -러, -다가, -아도, -지만, -며, -자, -으로, -에서, 도, -니 데다가, -기 때문에, -니 뒤, -순간,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게다가,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러면?)

부록의 표가 보여주듯이, 전체 285개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3회 이하의 발생 빈도수를 보이는 접속어는 TT1의 경우는 39개 가운데 27개를 차지하는데 총 47/285회의 발생 빈도수를 차지한다. 한편, TT2에서 3회 이하의 발생 빈도수를 보이는 접속어는 33개 가운데 22개로 총 38/285회의 발생 빈도수에 해당된다. 이는 평균 발생이 모두 1.7회이어서 반복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평균치(7.9)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적 가외치(outlier)에 해당된다. 따라서 3회 이하 발생한 접속어들은 번역 텍스트에서 문체 표지(style marker)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외치의 접속어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어와 그들이 보이는 발생 빈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7) 연결어미들은 음운적 교체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서’와 ‘-어서’ ‘-니까’와 ‘-으니까’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대표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연결어미, 접속부사 등 필요시에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들 모두를 접속어라고 부를 것이다 한 심사자께서 위 접속어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의 많은 접속어들의 의미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어 연구(예를 들어, 이은경 1998)에서도 위 접속어들은 형태(form)에 따라 그 의미가 논의되고 있다. 주석 (11)을 참조하기 바람.

〈표 1. 접속어 발생 빈도수〉

출현 빈도수 어휘	TT1	TT2
-아서	64	49
-아	36	52
-고	42	46
영(∅) 형태소	9	31
-는데	22	19
-면서	16	13
-기 때문에	7	13
-더니	12	4
-고는	11	3 <sup>8)</sup>
-는데다가	6	7
-자	2	4
그리고	5	2
그래서	8	9
합계	240	252

전체적으로 보면, 원천 텍스트의 접속어 ‘and’와 같이 접속된 두 사건 사이에 독자 추론을 허용하는 영(∅)형태소를 포함하여 ‘and’의 형태적 등가를 이루는 도착 텍스트의 등위 연결어미 ‘-고’와 등위 접속 부사 ‘그리고’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어는 모두 ‘순차’ ‘배경’ ‘동시’ ‘이유’ 등 논리적 연결어에 해당된다. 도착 텍스트에 이러한 논리적 연결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의 번역 텍스트에서 79%,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두 번역 텍스트는 논리적 접속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논리적 접속어를 두 번역 텍스트의 공통된 문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역 텍스트에서 발생한 접속어 13개 가운데 TT1의 ‘-아서,’ ‘-아,’ ‘-고,’ 그리고 ‘-면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이르며 TT2의 경우는 ‘-아서,’ ‘-아’ ‘-고’ 그리고 생략에 해당되는 영(∅)형태소가 70%를 차지한다. 연결어미 ‘-아’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아서’로 연결되었을 때 보다 좀 더

8) TT2에서 접속어 ‘-고는’은 3회 발생하는 가외치이지만 TT1에서는 그 이상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으로 표에 포함되었다.

밀착되어 있거나 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TT1의 번역가는 ‘-아’(36회 발생)에 비해 ‘-아서’(64회 발생)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반면, TT2의 번역가는 ‘-아서’(49회 발생)와 ‘-아’(52회 발생)를 비슷하게 선택하고 있다. 두 텍스트를 비교하면, TT2는 TT1에 비해 ‘-아’를 더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등위 연결어미 ‘-고’는 두 번역 텍스트에서 모두 유사한 비율(18%)로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TT2의 특징적 언어 선택은 영(0)형태소로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접속어도 선택하지 않고 두 사건을 병렬로 늘어놓는 것이다. TT1에서는 3%로 거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택되는 데 반해, TT2에서는 31회 발생하여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3.2에서 두 번역 텍스트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아서’와 ‘-아’ 그리고 생략을 중심으로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 표지의 차이를 논의할 것이다. 먼저 3.1에서는 두 번역 텍스트의 공통된 문체인 논리적 접속어의 선택으로 인한 문체 효과를 논의할 것이다.

### 3. 번역 텍스트의 문체 논의

#### 3.1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 표지: 논리적 접속어

앞 절에서 원천 텍스트의 문체 특징인 독자 추론 연결어인 접속어 ‘and’에 대응하는 번역 텍스트들의 접속어의 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번역 텍스트의 가외치를 제외한 접속어의 분포를 살펴보니 두 번역 텍스트 모두 13개 가운데 10개가 두 사건 사이에 사건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논리적 연결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이 전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79%와 68%에 해당됨을 보았다. 이는 원천 텍스트와 달리 두 번역 텍스트에서는 공통적으로 두 접속절의 의미관계가 ‘순차,’ ‘배경,’ ‘이유’ 등과 같은 논리 접속어들이 반복적 패턴을 형성하며 문체 표지로 문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리 접속어는 텍스트의 결속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데 그 이유는 접속된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독자가 추론하게 남겨두지 않고 독자들에게 두 사건

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통계적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원천 텍스트와는 달리, 번역 텍스트에서는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이 서술자의 입을 빌려 독자들의 소설세계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한다. 사물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언어 표현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서술자의 시점은 달라진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서술자 또는 등장인물들의 세계관에 대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는 작가의 언어 선택을 마음 문체라고 하는데, 번역 텍스트에서 반복적 패턴으로 쓰인 논리 연결어는 마음 문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역 텍스트에서 쓰인 논리적 접속어들이 어떻게 마음 문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아래의 ST에서 접속어 ‘and’는 선행절 ‘He was making out like he was walking a very straight line, the way kids do’의 사건과 후행절 ‘the whole time he kept singing and humming’의 사건을 연결시킨다.

(4)

ST He was making out like he was walking a very straight line, the way kids do, and the whole time he kept singing and humming.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는 독자들의 추론에 남겨진다. 원천 텍스트의 독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을 하면서 자기가 본 소설 속의 세계를 자신의 인지체계에 구축하게 된다. 한편, 아래의 번역 예시가 보여주듯이, 두 번역 텍스트는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독자들의 추론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이 본 방식으로 두 사건 관계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을 홀든의 입을 빌려 번역 텍스트에 남기고 있다.

(5)

TT1 애들이 으레 그렇듯이 자기가 아주 직선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줄로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콧노래를 흥얼대고 있었습니다.

TT2 그 애는 모든 아이들이 그러듯이 직선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걸으면서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두 사건 사이에 대한 접속부사 ‘그러면서’를 선택한 TT1의 번역은 서술자 홀든이 여섯 살 쯤 되어 보이는 사내 녀석이 커브길에 바로 인접한 차도를 걷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 하며 이 소년이 동시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소년이 차도를 걷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있다. 반면에 접속부사 ‘그런데’를 선택한 TT2에서 주인공 홀든은 이 소년이 차도를 걷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나 본 듯이 묘사하며 이 소년이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밖의 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TT2에서 이 소년이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견치 못한 것으로 독자의 마음에 그려진다. 결국, 위의 두 번역 텍스트에서는 두 사건 사이에 대한 서술자의 인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번역가가 서로 다른 접속부사를 선택한 결과이다. 즉 번역가는 이 두 사건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인지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번역가의 논리적 접속어 선택이 서술자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하자. 아래의 원천 텍스트에서 주인공 홀든은 어렸을 적 자기의 여자 친구 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인의 집에서 제인과 함께 체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제인의 의붓아버지가 제인에게 와서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못들은 체 답변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을 떨어뜨리자 홀든은 제인에게 커다히씨가 불순한 것이라도 했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다음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등위 접속의 형식으로 홀든은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6)

ST She was pretty young, but she had this terrific figure, and I wouldn't've put it past that Cudahy bastard.

TT1 그 애는 아직 꽤 어리지만 상당한 몸매를 지녔고 그래서 혹시 커다히 높이 그런 짓거리를 마다할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TT2 그녀는 아직 어리지만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러라는 놈의 구미를 자극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원천 텍스트에는 제인이 상당한 몸매를 지닌 것과 제인의 의붓아버지 커다리가 그런 그녀를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홀든의 생각이 모두 동등하게 기술되고 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과 제인이 상당한 몸매를 가진 것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독자들의 추론에 남게 된다. 그러나 원천 텍스트와 달리 번역 텍스트들은 모두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접속어를 써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TT1의 번역가는 ‘그래서’라는 결과 접속 부사를 선택함으로써 ‘제인이 상당한 몸매를 지녔다’는 선행절의 명제의미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으로 해석되게 하고 있다. 한편, TT2의 번역가는 이유 연결어미 ‘-기 때문에’를 선택하여 홀든이 그런 질문을 한 원인을 명시적으로 언술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추론하게 하지 않고 홀든이 말하게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논리 접속어를 선택함으로써 TT1 번역가의 인지상태는 두 사건 사이에서 후행절의 결과가 부각되고 있고 TT2 번역가의 인지상태에는 이유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9)</sup>

이와 같이 두 사건 관계에 대한 번역가의 논리적 접속어의 언어 선택은 원천 텍스트와 달리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접속어가 발생시키는 마음 문체의 효과는 원천 텍스트와는 다른 소설 세계를 독자들이 구축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원천 텍스트와 달리 번역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논리적 접속어는 두 사건에 대한 번역가의 인지 결과이며 이것이 주인공 홀든의 서술을 통해서 번역 텍스트의 소설세계가 원천 텍스트와는 다르게 구축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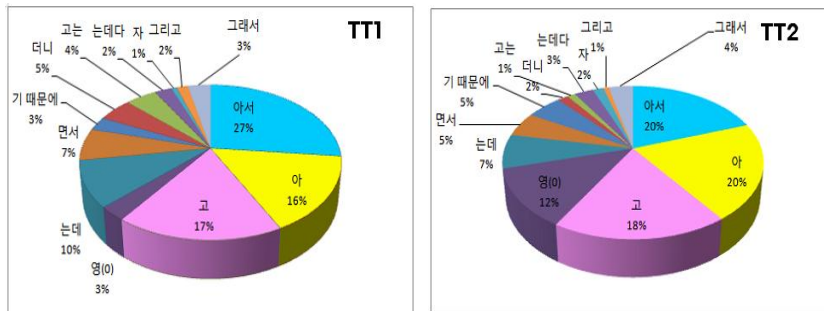
### 3.2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 차이

2.2장의 <표 1. 접속어 발생빈도수>를 보면, 영(0)형태소를 포함한 13개의

9)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6)의 두 번역은 동일한 진리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번역본은 문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체의 차이는 동일한 진리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방식이 서로 다름에 있다.

접속어 형태 가운데 번역 텍스트 TT1은 ‘-아서(64)’ ‘-고(42)’ ‘-아(36)’ ‘-는데(22)’의 고빈도순을 보이며 TT2의 번역 텍스트는 ‘-아(52)’ ‘-아서(49)’ ‘-고(46)’ ‘영(0)형태소(31)’의 순을 보이고 있다. 정수진(2012)에서 인용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 따르면, 한국어 연결어미 전체 항목수 281개에서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이며 ‘-아서’는 다섯 번째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빈도순: ‘-아’ ‘-고’ ‘-게’ ‘-지’ ‘-아서’). ‘-아’와 ‘-아서’의 발생 빈도수를 비교하면, 번역 텍스트 TT1은 한국어 비번역문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TT2는 그렇지 않다. 즉, 한국어 비번역문의 발생빈도에 의한 언어 규범에서 보면, TT1의 ‘-아서’와 ‘-아’의 발생 빈도는 일탈(deviation)을 보이고 있으나 TT2는 그렇지 않다. 한편, 두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면, 접속어 생략은 TT2에서 고빈도순의 범위에 속하지만 TT1에서 생략은 그렇지 않다. 특히 두 번역 텍스트에서 사용된 비율의 차이에서 보면, 다른 어떤 접속어 보다 가장 큰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TT1에서 생략의 ‘영(0)형태소’는 3%를 차지하는데 TT2에서 그것은 12%를 차지하여 두 번역 텍스트에서 가장 큰 발생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림 1. 두 번역 텍스트의 접속어 발생 비율〉



본 논문은 이러한 두 번역 텍스트의 발생 빈도에 의한 특징을 기반으로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차이를 ‘-아서’ 대 ‘-아’ 그리고 생략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sup>10)</sup>

연결어미 ‘-아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차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나열하

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수진 2012).<sup>11)</sup> TT1에서 ‘-아서’가 그리고 TT2에서 ‘-아’가 쓰인 아래의 용례를 보기로 하자.

(7)

ST So I went up to my room and put on my coat.

TT1 그래서 방에 올라가서 외투를 걸쳤지요.

TT2 그래서 내 방으로 올라가 외투를 입었다.

원천 텍스트에서 홀든은 자신이 방으로 올라간 사건과 그곳에서 외투를 입은 사건을 접속어 ‘and’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그라이스(1975)의 대화격률 중앙태의 격률(Maxim of Manner) 관점에서 보면, ‘순서대로 하시오’의 하위 격률에 따라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역 텍스트는 이 두 사건의 순차적 관계를 각각 접속어 ‘-아서’와 ‘-아’를 선택하여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TT1의 번역가는 ‘-아서’를 써서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된 사건으로 홀든의 입을 빌려 표현되게 하고 있다. 반면에 TT2의 번역가는 선행절의 ‘내 방으로 올라간’ 사건 보다 ‘(홀든이) 외투를 입은’ 사건이 더 강조되거나 두 사건이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상은 TT2의 번역가가 연결어미 ‘-아’를 선택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아서’와 ‘-아’의 쓰임이 주는 문체 효과의 차이는 한국어에서 연결어미 ‘-아’는 보조적 연결어미로서 그리고 ‘-아서’는 병렬적 연결어미로 그 쓰임

10) 두 번역 텍스트에서 원천 텍스트의 ‘and’ 접속절의 번역 결과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TT1과 TT2에서 선택된 접속어들의 발생빈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와 그 어휘들이 토른으로 출현한 빈도수를 비교하는 빈도 비교 통계방식으로 카이제곱 ( $\chi^2$ )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chi^2(12)=31.8$ ,  $p=0.001$  ( $p$ =probability)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확률이  $p<0.05$ 이므로 두 번역 텍스트 TT1과 TT2는 접속어의 사용 빈도수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역 텍스트에서 서로 가장 큰 차이의 발생빈도 비율을 보이는 생략의 영( $\theta$ )과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TT1의 ‘-아서’와 TT2의 ‘-아’의 문체적 특징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1) 연결어미 ‘-아서’는 기본적으로 다의어인데 세종전자사전(2007)은 ‘계기’와 ‘원인’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시간적 선후 관계’ ‘이유나 근거’ 그리고 ‘수단이나 방법’으로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아’가 쓰인 ‘책을 찢어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주 용언으로 쓰였고 ‘찢다’는 이 용언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서’가 쓰인 ‘책을 찢어서 버렸다’에서 ‘찢다’와 ‘버리다’는 모두 독립된 용언으로 쓰이고 있다. 즉, 두 사건이 ‘-아’와 결합될 때는 앞의 사건은 뒤 사건에 대한 보조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아서’와 결합될 때는 두 사건이 서로 병렬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결국, 번역가가 ‘-아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번역가의 인지 상태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며, ‘-아’를 선택할 경우는 선행하는 사건이 후행하는 사건에 대해 보조적 역할로 이해되는 경우이다.<sup>12)</sup>

TT1에서 ‘-아서’와 ‘-아’의 선택 비율이 27% 대 16%이며 TT2에서는 출현 비율로 각각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TT1의 번역가가 TT2의 번역가 보다 두 사건의 순차적 혹은 원인 관계에서 앞의 사건을 뒤의 사건과 대등한 시점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두 번역 텍스트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생략을 중심으로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차이를 보기로 하자. TT2의 번역가는 TT1의 번역가에 비해 전체의 10%에 가까운 접속어 생략을 더 선택하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 발생한 접속어 ‘and’를 번역 텍스트에서 생략하는 것은 접속어 선행절과 후행절을 서로 독립된 명제의미의 문장들을 병렬로 배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두 독립된 발화가 병렬로 배치되어 두 사건이 원천 텍스트에서 접속어 ‘and’에 의해서 연결되었을 때 보다 두 사건에 대한 독자의 해석이 더 요구되고 있다. 아래의 예시를 보기로 하자.

(8)

ST Mine came from Mark Cross, and they were genuine cowhide and all

12) 이러한 ‘-아서’와 ‘-아’의 화용적 의미 차이는 그 식별이 때로는 쉽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서정수(1982)는 ‘-아서’와 ‘-아’는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사건의 순차적 발생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에 쓰이면 ‘-아서’는 용인성이 적절 한데 ‘-아’는 그렇지 않다. 아래의 예시가 이를 보여준다.

- (i) 나는 학교에 가서 두 시간 후에 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 (ii) ?나는 학교에 가 두 시간 후에 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that crap, and I guess they cost quite a pretty penny.

TT2 내 것은 진짜 가죽이다 마크 크로스 회사의 제품이었다. 값도 엄청났을 것이다.

홀든이 자기 가방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다. 원천 텍스트에서 홀든은 자기 친구 딕 슬래글은 싸구려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것은 “마크 크로셔 제품이고, 진짜 가죽이며, 그리고 값도 비쌌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TT2의 번역가는 홀든이 자기 가방의 값에 대한 발화 “값도 엄청났을 것이다”를 독립시킴으로써 가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이 정보가 앞서 발화된 정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활성화되어 앞의 정보와 인과관계의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그 차이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홀든의 이 생각이 원천 텍스트에서는 앞의 선행절과 연결되어 전체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반면, TT2에서는 독립되어 이것이 강조되어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독자들에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래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위의 원천 텍스트에 대한 TT1의 번역가는 논리적 접속어 ‘-아서’를 선택하여 앞의 두 절의 정보 ‘Mine came from Mark Cross and they were genuine cowhide’를 ‘-아서’의 선행절에 배치함으로써 후행절 정보 ‘they cost quite a pretty penny’의 원인으로 번역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

TT1 내 것은 마크 크로스 회사 물건이고 진짜 소가죽이니 뭐니 하는 것이어서 돈 깨나 주고 산 거였거든요.

아래의 사례 또한 원천 텍스트에서 접속어 ‘and’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정보에 대해 번역 텍스트 TT1의 번역가는 자신의 해석 ‘그가 미남일 뿐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를 주인공 홀든에게 투입하여 말하고 있다. 반면, TT2의 번역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독자에게 남기고 있다.

(10)

ST He has a terrific voice, and he's a helluva handsome guy, and he's very nice to watch when he's walking or dueling or something, but he wasn't at all the way D.B. said Hamlet was.

TT1 그 사람 목소리는 끝내 줬고, 게다가 굉장히 미남인데다가 걷는 모습이며 싸움하는 모습도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DB형이 햄릿에 대해 말하던 그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TT2 목소리는 우렁차고 굉장한 미남이었다. ø 걷는 모습이나 격투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러나 D.B.가 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같이 TT2의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의 접속어 ‘and’를 생략함으로써 원천 텍스트의 접속 선행절과 후행절에 독립된 발화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 두 발화 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한 추론을 독자에게 남기고 있다. 번역 텍스트 TT1의 번역가는 접속어의 생략보다는 논리적 접속어를 선택함으로써 텍스트의 결속성을 높이고 있지만, 현대 소설이 논리적 접속어의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경향에 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sup>13)</sup>

이상 우리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 차이를 발생 빈도수에 기초하여 ‘-아서’ 대 ‘-아’ 그리고 생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역 텍스트 가운데 TT1에서는 한국어 비번역문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접속어 ‘-아’보다 ‘-아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TT2의 번역가에 비해 TT1의 번역가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인지적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마음 문체의 측면에서 볼 때, 작가가 선택하는 표현은 해당 사건이나 사물을 작가가 인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두 번역 텍스트의 번역가들은 동등한 사건이 주어졌다고 하

13) 리치와 쇼트(1981/2007: 201)에 따르면, 소설의 역사는 논리적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신 독자의 추론에 맡기고 있다. ‘의식의 흐름’의 문체로 유명한 조이스(J. Joyce)의 *Ulysses*의 한 장면은 통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문장들이 접속어 없이 병렬 배치되어 나타나고 있다(리치와 쇼트의 202쪽의 예시 51을 참조하기 바람). 한국소설에서도 김영하의 [바람이 분다]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나 접속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http://blog.naver.com/iocean74?Redirect=Log&logNo=20016998007).

더라도 자기의 경험이나 세계관에 따라 이를 달리 인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역 텍스트의 두드러진 문체 차이는 원천 텍스트의 접속어 ‘and’를 논리적 접속어로 변환시키거나 이를 생략하는 데서 드러났다. TT2의 번역가는 이를 생략하여 두 사건을 독립된 병렬 구조로 배치시킴으로써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반면, TT1의 번역가는 자신의 해석을 주인공 홀든의 입을 통해 번역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마무리를 지으며

이 논문에서 우리는 번역 문체론에 기초하여 『호밀밭의 파수꾼』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번역가의 선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번역 문체론은 번역 문학 텍스트에서 일관되게 반복적 패턴을 보이는 언어 표현을 문체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사건 관계 ‘and’ 접속문에 대응하는 두 번역 텍스트의 표현 방식을 285개 추출하여 그 접속어 유형과 발생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두 번역 텍스트가 논리적 접속어를 쓰는 비율이 각각 79%와 68%로 드러나 두 번역 텍스트의 문체 표지로 논리적 접속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아서’ ‘-기 때문에’ ‘-면’과 같은 논리적 접속어는 텍스트의 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이는, 각주 (13)에서 언급되었듯이, 접속어를 쓰지 않는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역 텍스트의 이러한 문체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번역 텍스트는 논리적 접속어를 선택하는 경향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연결어미 ‘-아서’와 ‘-아’의 선택에서 번역 텍스트 TT1은 한국어 비번역문과 달리 ‘-아’보다 ‘-아서’를 지배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탈의 문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TT2 역시 논리적 접속어의 선택이 주된 문체적 특징이지만, 아울러 논리적 접속어를 선택하지 않고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접속어 없이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게 하고 있다. 접속어 없이 병렬 배치된 발화 형태의 선택으로 인하여 번역 텍스트 TT2의 논리적 접속어 사용 비율(68%)이 TT1의 비율(79%) 보다 낮았던 것이다. 논리적 접속어의 사

용과 관련하여 현대 소설에서 그 사용이 제한적인 것이 현대 소설 문체의 특징이라고 볼 때, 원천 텍스트에 비해 두 번역 텍스트에서 논리적 접속어들의 반복적 패턴 양상은 원천 텍스트에 대해 일탈된 문체임을 보여준다.

번역 문체론의 탐구 방법은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 유효하다. 비록 통계적 접근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반복적 패턴을 이루는 요소를 밝히고 이의 문체 효과를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볼 때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은 잘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의 흔적이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문체의 측면에서 논의할 때, 저자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번역 비평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 (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2010)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전자 사전」, 국립국어연구원.
- 김순영 · 이경희 (2012)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번역학연구』 13(1): 33-58.
- 서정수 (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53-74.
- 이은경 (1998) 「접속어미의 통사」, 서태룡 외(편집), 『문법 연구와 자료』 463-89. 서울: 태학사.
- 이희자 · 이종희 (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정수진(2012)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50: 405-28.
- 조의연 (2003) 「인지의미론에서 본 영어 상호-사건 관계 ‘and’ 접속구문: 진정한 등위접속인가?」, 『담화와 인지』 10(2): 177-95.
- 조의연 (2011) 「영한번역과정에 나타난 외축의 명시화: 비대칭 ‘and’ 접속 구문

- 화용의미 사례 분석], 『번역학연구』 12(2): 185-06.
- 황도경 (2002) 『문체로 읽는 소설』 서울: 소명출판.
- Boase-Beier, J.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Boase-Beier, J.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Bosseaux, C.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Fowler, R. (1977) *Linguistics and the Novel*. London: Methuen.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utt, E.-A.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2nd edi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Leech, G. and M. Short (1981/2007) *Style in Fiction* London: Longman.
- Malmkjær, K (2004) 'Translational stylistics: Dullcken's translations of Hans Christian Anderse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24.
- Malmkjær, K and R. Carter (2002) 'Stylistics,' in K. Malmkjær (ed.) *The Linguistics Encyclopedia*, 2nd ed. 510-20. London: Routledge.
- Munday, J. (2008) *Style and Ideology in Translation: Latin American Writing in English*. London: Routledge.
- Murphy, T. (2011) 'Levels of style in narrative fiction,' *Situations* 5: 48-68, Yonsei University.
- Semino, E. (2007) 'Mind style 25 years on,' *Style* 41(2): 153-203.

<분석대상 텍스트>

- ST: J.D. Salinger. 1951. *The Catcher in the Rye*. London: Penguin.
- TT1 이덕형. 1985.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문예출판사.
- TT2 김옥동 · 염경숙. 1994.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현암사

## 부록

〈표: 두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어 발생 빈도수〉

접속어	TT1	TT2
-아서	64	49
-아	36	52
영(0)	9	31
-고	42	46
-는데	22	19
-면서	16	13
-기 때문에	7	13
-고는	11	3
-더니	12	4
-는데다가	6	7
-(으)니까	3	2
-(으)러	1	3
-는데도	3	1
-이라	3	0
-(는) 길에	3	2
-다가	3	2
-것도	2	1
-어도	1	3
-지만	2	3
-기에	2	0
-다	1	0
-으로	1	1
-은 커녕	1	0
-에서	2	2
-뿐만 아니라	0	2
-며	2	2
-자	2	4
-(으)므로	1	0
-중에	2	0
-기가 무섭게	1	0
-(ㄴ)뒤	2	1
-(ㄴ)순간	1	1
-(ㄴ)탓에	1	0
그리고	5	2
그래서	8	9

그런데	2	3
게다가	2	1
그런데도	0	1
그러면서	1	1
동안에	0	1
그러면	1	1
한데	1	0
총계	285	285

[Abstract]

**A Study of Translator's Choice of Stylistic Features:  
Two Translations of J.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 Seoul)

Based on the method of translational stylistics put forward by Malmkjær (2004), this paper gives a stylistic analysis of two translations of the American English novel *The Catcher in the Rye* by J.D. Salinger. For this purpose, the basic assumption taken in this study is that a translator's (writing) choice of a word/phrase or structure reflects his or her cognitive state of how he or she views the world or the literary world in his or her cognition, called 'mind style' in Fowler(1977). The main focus has been put on how two Korean translations translated the source text's general purpose link conjunction 'and' sentences. What has been found is that in the two translated texts, logical connectives such as '-오서'(then, because) '-오'(then, because) '-는데'(background) and '-면서'(during) are dominantly used in the place of the English 'and' conjunction whose function is known to be a general purpose link, being different from those logical connectives such as 'therefore' and 'so.' The statistical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style of the two translated texts of using those logical connectives runs against the trend of modern novels which use few logical connectives as attested in J. Joyce's *Ulysses* (Leech and Short 1981/2007). Although the two translated text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logical connectives, one of them, TT2 in this study appears to have used noticeable numbers of two juxtaposed sentences without any connective. Since the 'zero ( $\emptyset$ ) connective' took the fourth in the frequency of the connectives

used in TT2, it has been taken as a style marker and given a stylistic analysis in this paper.

▶ Key Words: translational stylistics, mind style, translator's choice, conjunction *and*, statistical method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인지의미론, 번역학, 화용론

논문투고일: 2012년 11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